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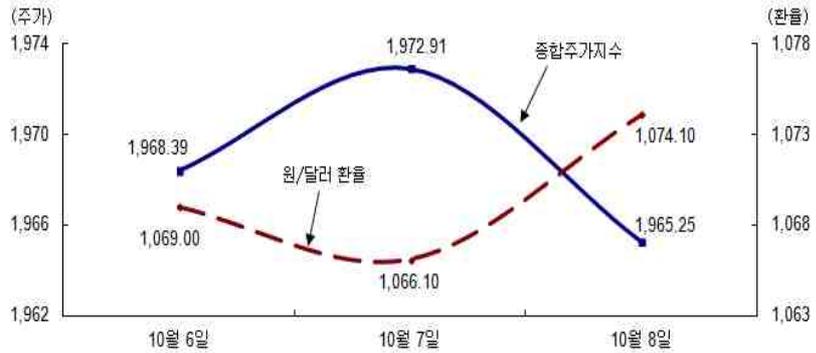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가계수지의 동태적 변화와 시사점
- 중산층이 위기에 더 취약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0.6~10.8)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 | |
|---------------------|----|
| 주요 경제 현안 | 1 |
| □ 가계수지의 동태적 변화와 시사점 | 1 |
|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11 |

□ 본 자료는 기업 경영인들을 위해 작성한 국내외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개인 견해를 밝히며, 보고서 인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2072-6230, swan@hri.co.kr)
 □ 작성 : 김 민 정 연구위원 (2072-6212, kimmj@hri.co.kr)

Executive Summary

□ 가계수지의 동태적 변화와 시사점 - 중산층이 위기에 더 취약

■ 개요

가계수지의 동태적 변화 분석은 가구별 가계수지의 이동성과 건전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즉 전년도에 흑자를 기록했던 가구가 올해 흑자를 지속(흑자→흑자)하거나 적자로 전환(흑자→적자)될 수 있고, 전년도에 적자를 기록했던 가구가 올해 적자를 지속(적자→적자)하거나 흑자로 전환(적자→흑자)될 수 있다. 2000년 이후 가계수지의 동태적 변화(흑자유지, 적자전환, 적자유지, 흑자전환)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가계수지의 동태적 변화

첫째, 흑자가구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2년 현재 흑자유지(흑자→흑자)가구가 70.9%로서 가장 많았고, 흑자전환(적자→흑자)가구는 10.7%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 유형을 합한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다. 둘째, 가계수지 양극화가 심화됐다. 즉, 흑자유지 가구의 흑자폭은 증가하고, 적자유지 가구의 적자폭도 증가하면서 둘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셋째, 적자가구의 고착화가 진행되고 있다. 즉,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적자가구의 흑자전환율이 하락하고 있다. 넷째, 흑자가구의 흑자유지 비중이 높아졌다. 즉, 가구가 일단 흑자를 기록하면 그 흑자를 계속 유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적자전환율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경제위기는 다른 소득계층보다 중산층 가구에 더욱 큰 악영향을 미쳤다. 즉, 경제위기 이후 적자전환 가구 중 중산층의 비중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서 중산층이 경제위기에 더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적자유지가구 중 중산층의 비중이 증가했다. 즉, 적자유지가구 가운데 저소득층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중산층 가구도 한번 적자로 떨어지면 회복이 더욱 어려워 적자를 지속하는 중산층 비중이 증가한 것이다. 일곱째, 중산층의 가계수지 개선이 미흡하다. 즉,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가구 가운데 중산층의 비중은 2009년 51.4%에서 2012년 48.0%로 감소하여, 최근 들어 중산층의 가계수지가 이동성이 악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산층이 가계수지 흑자를 유지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즉,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흑자를 유지하는 가구 중 중산층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비중은 더욱 증가했다. 결론적으로, 가계수지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본 결과, 중산층의 가계수지가 더 악화되고 있으며, 가계수지의 이동성이 악화되는 한편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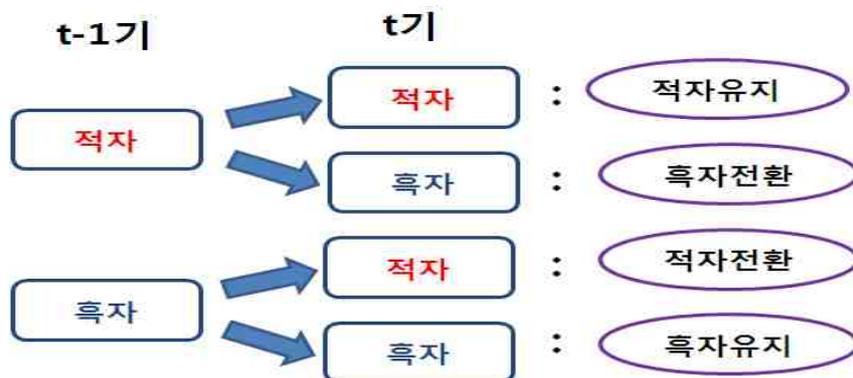
■ 시사점

가계수지의 건전성과 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첫째,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근로소득 확대를 유도하여 중산층의 적자 전환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완화 등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책을 통해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중산층 및 취약 계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거비, 의료비, 식료품비의 증가를 최소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1. 개요

- 가구의 가계수지를 동태적 변화를 기초로 해서 적자유지, 흑자전환, 흑자유지, 적자전환으로 가구를 분류해 2000년 이후 가계수지의 변화를 분석
 - 가계수지의 동태적 분석은 적자 및 흑자가구의 이동성을 파악 할 수 있어,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충격이 가구의 재정 건전성의 동태적 변화에 준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음
 - 기존 적자 및 흑자가구 분석은 가계수지의 정태적 분석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보고서에서는 가계수지의 동태적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 본 보고서에서는 2000~2012년의 노동패널¹⁾을 이용해 가계수지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해 가계수지 건전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가구의 가계수지를 산출해 흑자 및 적자 유무에 따라, 적자유지, 흑자전환, 적자전환, 흑자유지로 네 가지의 가구 형태로 구분하여 가계수지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함
 - 흑자전환, 적자전환, 흑자유지, 적자유지 가구의 소득계층별 비중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가계수지에 따른 가구의 동태적 변화 유형 >



1) 한국노동패널은 가구패널조사로 5,000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 구성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에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조사된 가구를 대상으로 전년도(t-1)의 가계수지와 올해(t)의 가계수지를 산출하여 이들 가구들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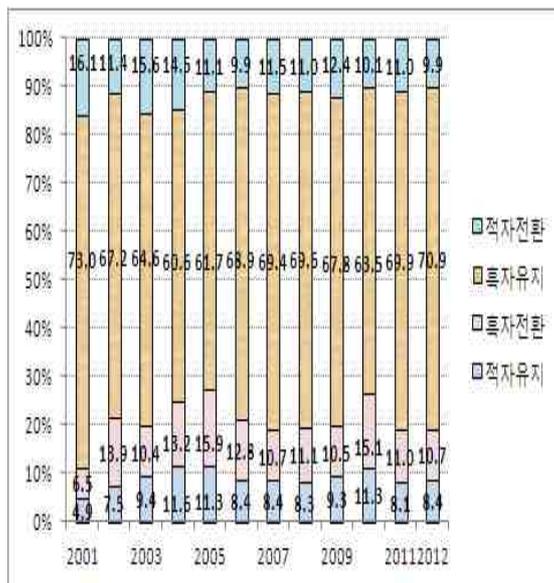
2. 가계수지의 동태적 변화

1) 유형별

○ 흑자유지 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흑자(흑자유지+흑자전환) 가구의 비중이 완만하게 증가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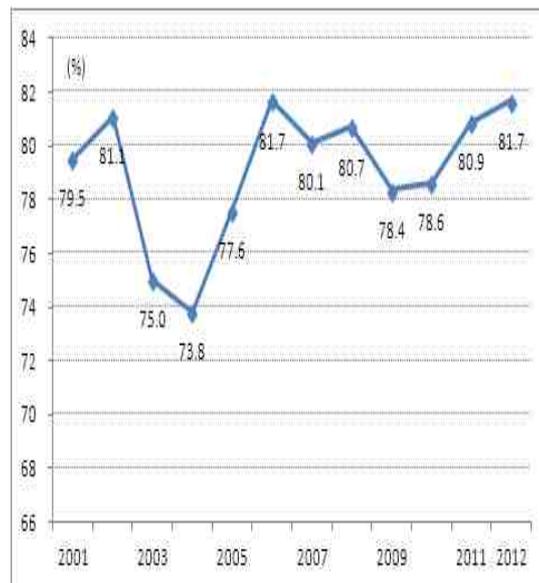
- 흑자유지 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고, 흑자(흑자유지+흑자전환) 가구의 비중은 추세적으로 증가세
 - 흑자유지 가구 비중은 카드사태 여파로 2004년 60.6%, 2005년 61.7%로 감소했지만, 그 이후 회복세를 나타내며 증가하여 2012년 70.9%를 기록함
 - 흑자(흑자유지+흑자전환) 가구의 비중은 카드사태 및 금융위기 이후 하락했지만 회복세를 나타내며 추세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함
 - 적자전환 가구 비중은 2012년 9.9%를 기록, 적자유지 가구는 2012년 8.4%를 기록함

< 가구 유형별 비중 추이 >



자료 : 노동패널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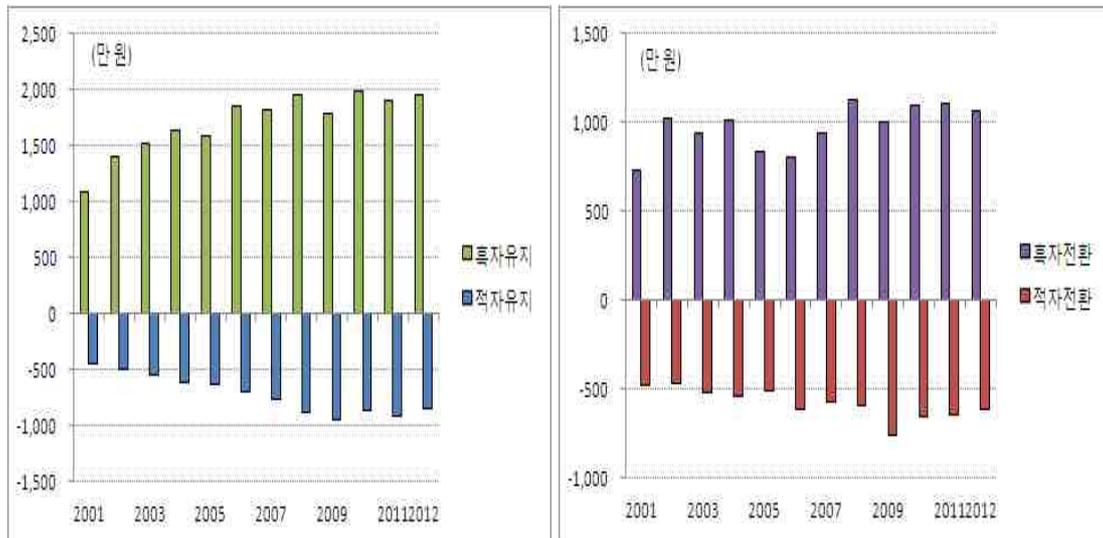
< 흑자(흑자유지+흑자전환) 가구의 비중 추이 >



자료 : 노동패널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 흑자유지 가구의 흑자폭은 증가하고 적자유지 가구의 적자폭도 증가해, 흑자유지 가구와 적자유지 가구의 가계수지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음
- 흑자유지 가구의 흑자 규모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적자유지 가구의 적자규모도 증가세를 나타내 흑자유지 가구와 적자유지 가구의 가계수지 차이가 더욱 크게 확대됨
 - 흑자유지 가구의 흑자 규모는 증가세를 나타내는 반면에 흑자전환 가구의 흑자규모는 정체되어 있어 흑자를 지속하는 가구의 재정 건전성이 흑자전환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제고됨
 - 흑자유지 가구와 적자유지 가구의 가계수지 차이가 2001년 기준 연평균 1,530만 원이었으나 2012년 2,806만 원으로 크게 확대되며 가계수지 건전성의 격차가 더욱 확대됨
 - 2000년 초반에 비해 최근 적자유지 가구와 적자전환 가구의 가계수지 적자폭이 증가해 적자를 기록하는 가구의 가계수지 건전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지 가구의 가계수지 규모 추이 > < 전환 가구의 가계수지 규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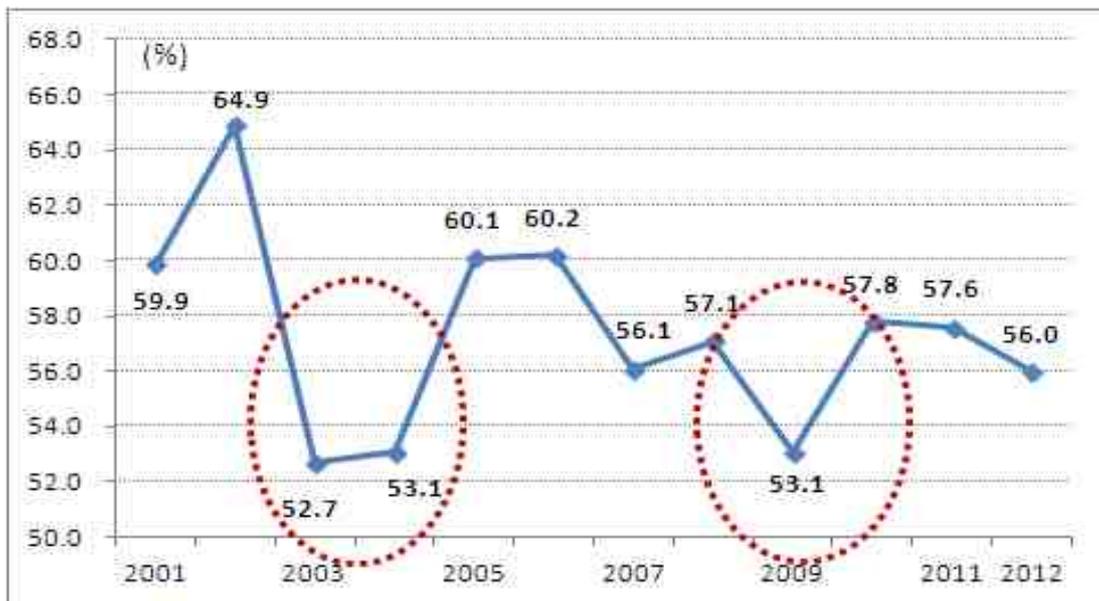


자료 : 노동패널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가중치를 고려해 각 유형별로 가계소득에서 가계지출을 뺀 연평균 수치를 나타냄.

2) 전환율별

-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비중(흑자전환율)이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적자가구의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며 적자가구 고착화 심화
 - 금융위기 직후 카드사태 수준까지 급락하며 악화되었던 흑자전환율이 2010년 상승했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며 다시 악화되고 있음
 -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흑자전환 가구 비중을 나타내는 흑자전환율이 카드사태 여파로 인해 2003년 52.7%, 2004년 53.1%까지 하락하며 악화되었으나 그 이후 상승하며 2006년 60.2%까지 높아짐
 -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3.1%로 급락했던 흑자전환율이 2010년 57.8%로 상승했으나 그 이후 2011년 57.6%, 2012년 56.0%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냄

< 흑자전환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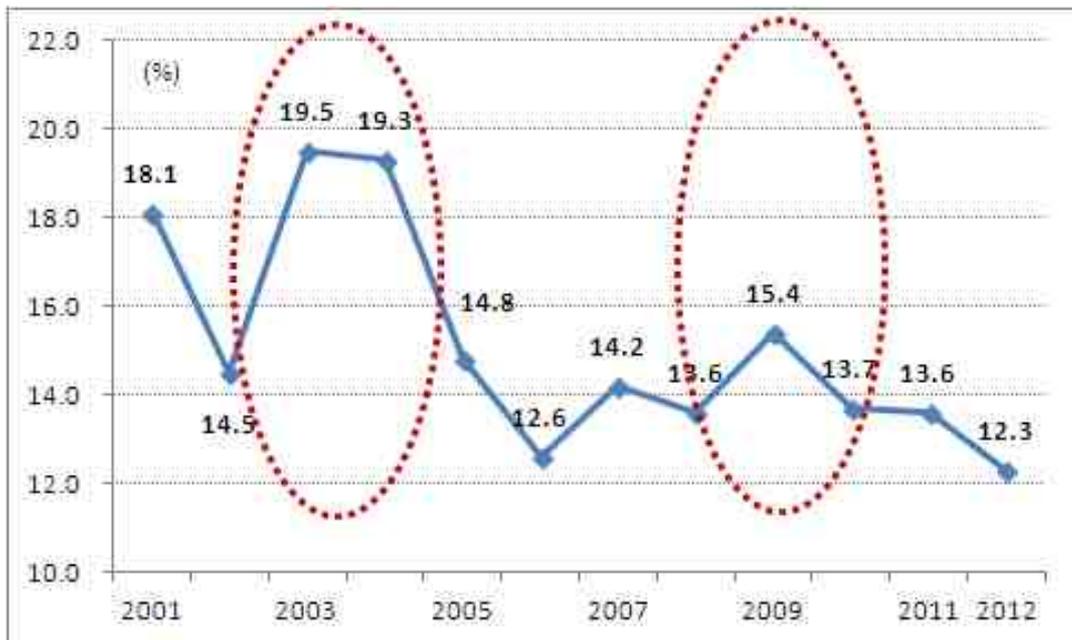


자료 : 노동패널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흑자전환율은 전년도(t-1) 적자를 기록했던 가구 중에서 올해(t) 흑자로 전환된 가구 비중을 나타냄 .

-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는 비중(적자전환율)이 금융위기 직후 증가했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흑자를 지속하는 가구가 증가함
 - 적자전환율은 카드사태로 인해 급증했고, 금융위기 직후 증가했으나 그 이후 하락하며 회복세를 나타냄
 -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된 적자전환 가구 비중을 나타내는 적자전환율이 카드사태 여파로 인해 2003년 19.5%, 2004년 19.3%까지 급등하며 악화되었으나 그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며 2006년 12.6%로 회복됨
 -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5.4%로 증가했던 적자전환율이 그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며 2012년 12.3%로 하락함
 - 적자전환율 하락은 가계수지 흑자를 기록했던 가구가 그 다음해에도 가계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해 가구의 가계수지 건전성이 일단 양호해 지면 그 상태를 지속하는 가구가 증가함을 나타냄

< 적자전환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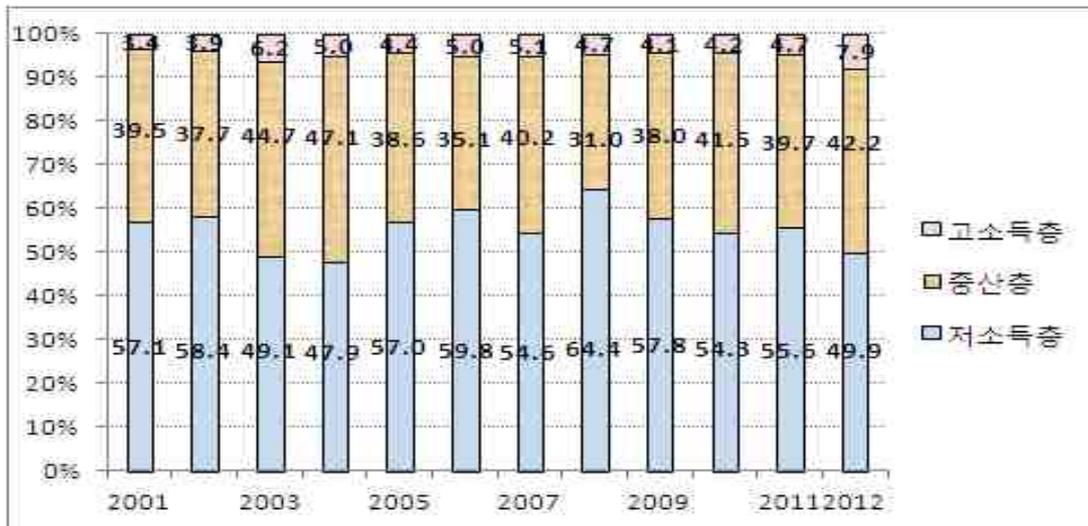
자료 : 노동패널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적자전환율은 전년도(t-1) 흑자를 기록했던 가구 중에서 올해(t) 적자로 전환된 가구 비중을 나타냄.

3) 소득계층별

- 적자전환 가구 중 중산층의 비중이 카드사태와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를 나타내, 경제 위기는 다른 소득계층보다 중산층에 더욱 큰 악영향을 미침
 - 카드사태와 금융위기 이후 적자전환 가구 중 중산층 비중이 확대되며 중산층 가구의 가계수지 더욱 악화됨²⁾
 - 카드사태와 금융위기 이후 적자전환 가구 중 중산층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경제 위기가 중산층의 가계수지 악화에 크게 악영향을 줌
 - 카드사태 여파로 인해 적자전환 가구 중 중산층의 비중은 2003년 44.7%, 2004년 47.1%까지 확대됨
 - 적자전환 가구 중 중산층의 비중이 2008년 31.0%까지 축소되었으나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2009년 38.0%, 2010년 41.5%, 2011년 39.7%, 2012년 42.2%를 기록하며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냄

< 적자전환 가구의 소득계층별 비중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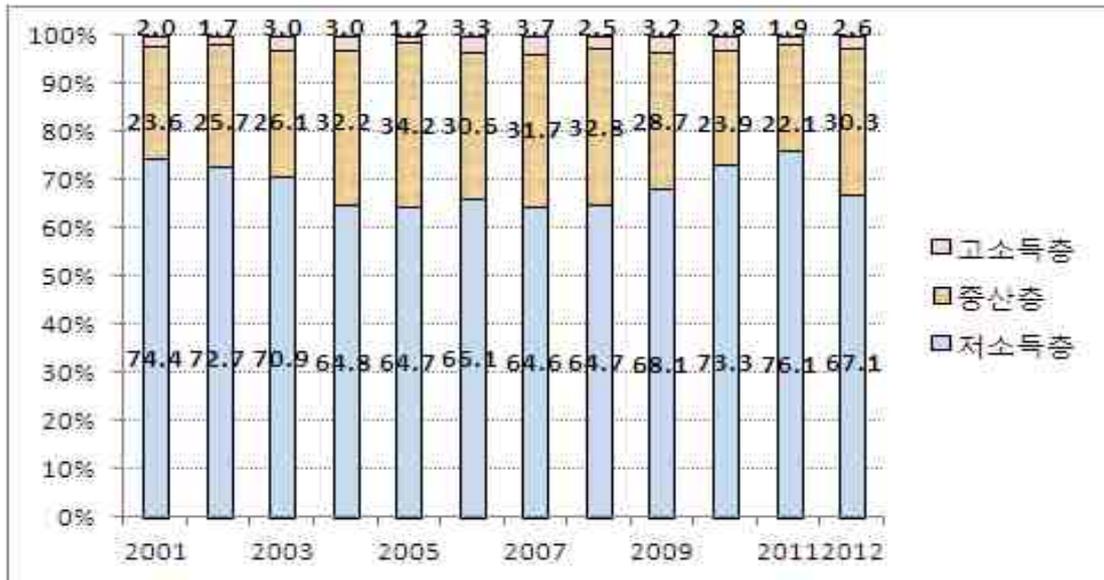
자료 : 노동패널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 주 : 1) 저소득층은 중위소득의 50%이하,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50~150%이하, 고소득층은 중위소득의 150%초과로 정의함.
- 2) 가중치를 고려한 가구의 중위 소득은 2001년 1800만 원, 2002년 2100만 원, 2003년 2272만 원, 2004년 2380만 원, 2005년 2400만 원, 2006년 2580만 원, 2007년 2720만 원, 2008년 2904만 원, 2009년 2950만 원, 2010년 3000만 원, 2011년 3208만 원, 2012년 3360만 원으로 나타남.
- 3) 전년도(t-1) 흑자를 기록했던 가구 중에서 올해(t) 적자로 전환된 가구 중 소득계층 별로 비중을 나타냄.

2) 「우리나라 가계의 엔젤계수 특징과 시사점」, 경제주평(2014. 6)에 따르면 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경제위기로 인한 소득 감소 충격에도 중산층은 교육비, 식료품비 등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없는 항목이 많아서 중산층이 경기 변동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 적자유지 가구 중 저소득층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2012년 중산층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중산층 가구도 한번 적자로 떨어지면 회복이 최근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적자유지 가구의 소득계층별 비중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최근 중산층의 비중이 확대됨
 - 적자유지 가구 중 중산층의 비중은 카드사태 여파로 인해 2004년 32.2%, 2005년 34.0%로 확대되어 중산층 가구의 가계수지가 악화됨
 - 적자유지 가구 중 중산층의 비중은 2010년 23.9%, 2011년 22.1%로 감소하였으나 2012년 30.3%로 크게 확대됨
 - 최근 적자유지 가구 중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서 중산층 가구도 한번 가계수지가 적자로 떨어지면 회복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함

< 적자유지 가구의 소득계층별 비중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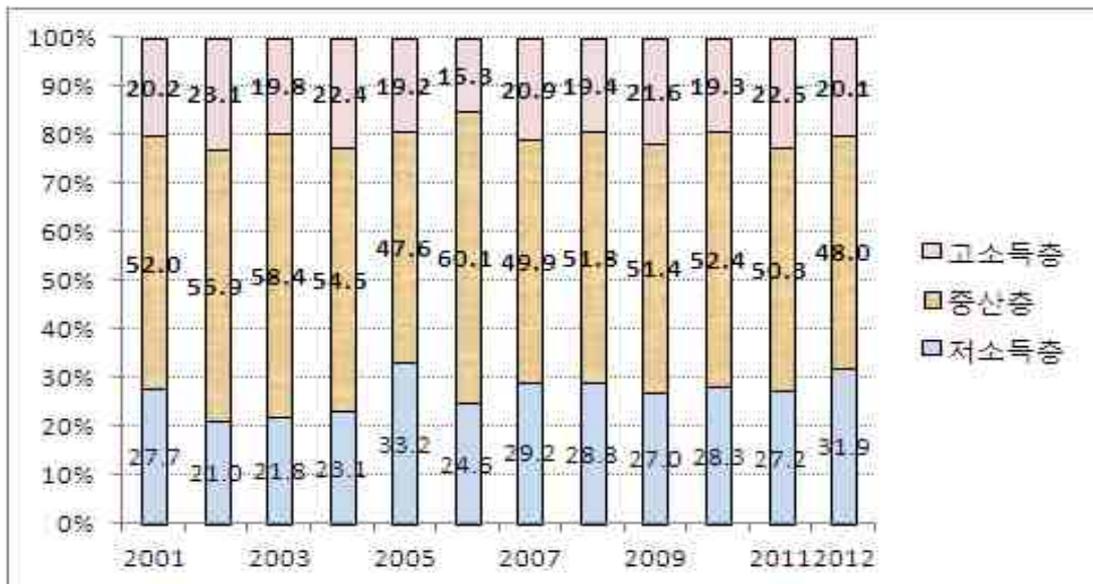


자료 : 노동패널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 주 : 1) 저소득층은 중위소득의 50%이하,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50~150%이하, 고소득층은 중위소득의 150%초과로 정의함.
- 2) 기중치를 고려한 가구의 중위 소득은 2001년 1800만 원, 2002년 2100만 원, 2003년 2272만 원, 2004년 2380만 원, 2005년 2400만 원, 2006년 2580만 원, 2007년 2720만 원, 2008년 2904만 원, 2009년 2950만 원, 2010년 3000만 원, 2011년 3208만 원, 2012년 3360만 원으로 나타남.
- 3) 전년도(t-1) 적자를 기록했던 가구 중에서 올해(t)도 적자를 지속하는 가구의 소득 계층별 비중을 나타냄.

- 흑자전환 가구 중 중산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2년 중산층 비중이 금융위기 수준보다도 낮아, 중산층의 가계수지 개선이 미흡
- 흑자전환 가구 중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지만 최근 감소해 금융위기 수준보다도 더 낮음
 -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흑자전환 가구의 소득계층별 비중을 살펴보니, 중산층의 비중은 2012년 48.0%로 금융위기 수준보다도 낮음
 - 흑자전환 가구 중 중산층 비중이 50%이하로 하락한 시점은 2005년, 2007년, 2012년으로 나타남
 - 흑자전환 가구 중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31.9%로 금융위기 수준보다도 증가해 저소득층의 가계 수지 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최근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흑자전환 가구의 소득계층별 비중 추이 >



자료 : 노동패널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1) 저소득층은 중위소득의 50%이하,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50~150%이하, 고소득층은 중위소득의 150%초과로 정의함.

2) 가중치를 고려한 가구의 중위 소득은 2001년 1800만 원, 2002년 2100만 원, 2003년 2272만 원, 2004년 2380만 원, 2005년 2400만 원, 2006년 2580만 원, 2007년 2720만 원, 2008년 2904만 원, 2009년 2950만 원, 2010년 3000만 원, 2011년 3208만 원, 2012년 3360만 원으로 나타남.

3) 전년도(t-1) 적자를 기록했던 가구 중에서 올해(t) 흑자로 전환된 가구 중 소득계층별로 비중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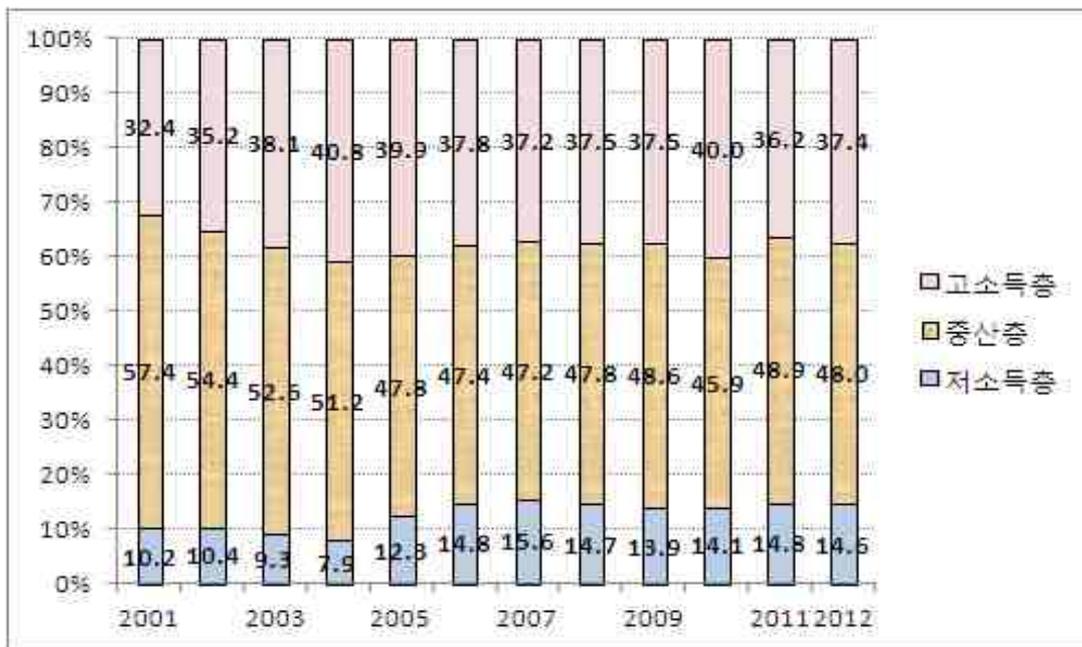
○ 흑자유지 가구 중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비중은 상승세를 나타내, 가계수지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구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서 증가한 반면에 중산층의 비중은 하락함

- 흑자유지 가구 중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비중이 상승세를 나타내 가계수지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가구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증가함

· 2000년대 이후 흑자유지 가구 중 중산층 비중은 감소세를 나타내 2001년 57.4%에서 2012년 48.0%로 9.4%p 하락해 가계수지 건전성을 유지하는 중산층 비중이 크게 감소함

· 흑자유지 가구 중 고소득층은 2001년 32.4%에서 상승세를 나타내며 2012년 37.4%를 기록했고 저소득층은 2001년 10.2%에서 2012년 14.5%로 증가함

< 흑자유지 가구의 소득계층별 비중 추이 >



자료 : 노동패널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1) 저소득층은 중위소득의 50%이하,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50~150%이하, 고소득층은 중위소득의 150%초과로 정의함.

2) 기중치를 고려한 가구의 중위 소득은 2001년 1800만 원, 2002년 2100만 원, 2003년 2272만 원, 2004년 2380만 원, 2005년 2400만 원, 2006년 2580만 원, 2007년 2720만 원, 2008년 2904만 원, 2009년 2950만 원, 2010년 3000만 원, 2011년 3208만 원, 2012년 3360만 원으로 나타남.

3) 전년도(t-1) 적자를 기록했던 가구 중에서 올해(t) 흑자로 전환된 가구 중 소득계층 별로 비중을 나타냄.

3. 시사점

- 최근 흑자전환율이 하락하며 특히 중산층 가계수지의 동태적 변화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근로 소득 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중산층의 적자 전환을 방지함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구의 소득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 좋은 일자리 창출이 많이 이루어져야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계층 상승이 가능해지고 중산층의 계층 하락을 방지할 수 있음
 -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완화 등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을 통해 가계의 재무 건전성 제고
 - 특히,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지속은 적자지속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개인 파산 증가 및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등 부작용을 야기함에 따라 가계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확대
 - 중산층 및 취약 계층의 흑자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거비, 의료비, 식료품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함
 -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산층의 교육비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 지속
 -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 대상 기준도 완화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
 - 적자를 지속하는 가구에 대한 가계의 재무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
 -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역할을 강화하여 이를 통한 가계의 재무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일자리 상담도 병행해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경제연구본부 김민정 연구위원 (2072-6212, kimmj@hri.co.kr)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 구분 | 2012년 | | | | | 2013년 | | | | | 2014년* |
|-------|-------|------|------|------|------|-------|------|-----|-----|------|--------|
|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
| 미국 | 2.8 | 3.7 | 1.2 | 2.8 | 0.1 | 1.9 | 2.7 | 1.8 | 4.5 | 3.5 | 1.8 |
| 유로 지역 | -0.6 | -0.1 | -0.3 | -0.1 | -0.5 | -0.4 | -0.2 | 0.3 | 0.1 | 0.3 | 0.8 |
| 일본 | 2.0 | 3.7 | -1.7 | -3.1 | -0.2 | 1.7 | 5.2 | 3.4 | 1.4 | -0.2 | 0.9 |
| 중국 | 7.7 | 8.1 | 7.6 | 7.4 | 7.9 | 7.7 | 7.7 | 7.5 | 7.8 | 7.7 | 7.4 |

주 : 1) 2014년 전망치*는 IMF 2014년 10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유로 지역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 구분 | 2012년말 | 2013년 | | 2014년 | | | |
|----|------------------|---------|---------|---------|----------|----------|----------|
| | | 6월말 | 12월말 | 10월 3일 | 10월 9일 | 전주비 | |
| 해외 |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 1.70 | 2.46 | 3.03 | 2.43 | 2.31 | -0.12%p |
| | 엔/달러 | 85.86 | 98.51 | 105.04 | 109.76 | 107.84 | -1.92 ¥ |
| | 달러/유로 | 1.3222 | 1.3031 | 1.3799 | 1.2516 | 1.2691 | 0.0175\$ |
| | 다우존스지수(p) | 12,938 | 14,910 | 16,577 | 17,009.7 | 16,659.3 | -350.4p |
| | 닛케이지수(p) | 10,395 | 13,677 | 16,291 | 15,708.7 | 15,478.9 | -229.8p |
| 국내 | 국고채 3년물 금리(%) | 2.82 | 2.88 | 2.86 | 2.25 | 2.29 | 0.04%p |
| | 원/달러(원) | 1,070.6 | 1,142.0 | 1,055.4 | 1,061.4 | 1,074.1 | 12.7원 |
| | 코스피지수(p) | 1,997.1 | 1,863.3 | 2,011.3 | 1,976.2 | 1,965.3 | -10.9p |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 구분 | 2012년말 | 2013년 | | 2014년 | | | |
|---------|--------|--------|--------|--------|--------|-------|---------|
| | | 6월말 | 12월말 | 10월 3일 | 10월 9일 | 전주비 | |
| 국제 유가 | WTI | 90.89 | 96.52 | 98.55 | 89.73 | 85.49 | -4.24\$ |
| | Dubai | 107.99 | 100.38 | 107.88 | 91.12 | 89.23 | -1.89\$ |
| CRB선물지수 | 294.78 | 275.62 | 280.17 | 277.00 | 277.07 | 0.07p | |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 구 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 2015년(E) | | | |
|----------------|----------------|--------|--------|-------|-------|----------|-------|-------|-------|
| | | | 상반 | 하반(E) | 연간(E) | 상반 | 하반 | 연간 | |
| 국민계정 | 경제성장률 (%) | 2.3 | 3.0 | 3.7 | 3.6 | 3.6 | 3.5 | 3.6 | 3.6 |
| | 민간소비 (%) | 1.9 | 2.0 | 2.0 | 2.6 | 2.3 | 3.0 | 2.6 | 2.8 |
| | 건설투자 (%) | -3.9 | 6.7 | 1.9 | 1.8 | 1.9 | 1.6 | 4.3 | 3.0 |
| | 설비투자 (%) | 0.1 | -1.5 | 7.6 | 3.9 | 5.7 | 4.2 | 6.0 | 5.1 |
| | 지재투자 (%) | 8.6 | 7.3 | 6.1 | 5.9 | 6.0 | 7.3 | 7.0 | 7.1 |
| 대외거래 | 경상수지 (억 달러) | 508 | 799 | 392 | 408 | 800 | 320 | 360 | 680 |
| | 무역수지 (억 달러) | 283 | 440 | 202 | 231 | 433 | 192 | 234 | 426 |
| | 수 출 (억 달러) | 5,479 | 5,596 | 2,833 | 2,936 | 5,770 | 2,949 | 3,074 | 6,023 |
| | (증가율, %) | (-1.3) | (2.1) | (2.5) | (3.7) | (3.1) | (4.1) | (4.7) | (4.4) |
| | 수 입 (억 달러) | 5,196 | 5,156 | 2,631 | 2,705 | 5,336 | 2,757 | 2,840 | 5,597 |
| | (증가율, %) | (-0.9) | (-0.8) | (2.6) | (4.4) | (3.5) | (4.8) | (5.0) | (4.9) |
| 소비자물가 (평균, %) | 2.2 | 1.3 | 1.4 | 1.9 | 1.7 | 2.0 | 1.9 | 1.9 | |
| 15~64세 고용률 (%) | 64.2 | 64.4 | 65.0 | 65.6 | 65.3 | 66.0 | 66.5 | 66.2 | |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